

셀예배 교안

열왕기상 12:1-11 | 말씀이 사건이 되다 (2)

다함교회 | 열왕기상 강해 15 | 진행 시간 약 70분

인도자 준비 안내

- 이번 주 한 문장 — 사람은 자기 계산대로 결정하지만, 하나님은 그 결정을 통해 이미 하신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질문은 “나에게 이익인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입니다.
- 마음 열기의 두 질문(조언·명예)은 오늘 본문의 두 축과 직접 연결됩니다. 답을 평가하지 마시고 그대로 받아 주십시오. 무거운 이야기가 나오면 서둘러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기억해 두었다가 마지막 합심 기도에서 다루십시오.
- 15절을 다루실 때 “그러니 다 잘될 거야”라는 값싼 위로로 마무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은 고통을 설명해 주는 공식이 아니라, 고통 중에도 붙들 수 있는 손입니다.
- 본문은 실패한 왕의 이야기이지만 정죄로 끝나지 않도록, 반드시 참된 왕의 명예(마 11:28-30)와 다윗을 위하여 남기신 한 지파에서 오신 그리스도로 착지시켜 주십시오.
- 준비물 — 성경, 필기구, A4 백지(각 1장, 마지막 적용 활동용).

셀예배 순서

- 찬송 — 새찬송가 63장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10분)
- 여는 기도 — 인도자 (3분)
- 마음 열기 나눔 (7분)
- 말씀 봉독 — 열왕기상 12:1-11 (5분)
- 본문 해설 (10분)
- 나눔 질문 (20분)
- 적용 활동 — “질문을 바꾸는 결정 노트” (10분)

8. 합심 기도 및 마무리 (5분)

9. 결단 찬송 — 새찬송가 363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1. 여는 기도 (인도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오늘 이 작은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생각과 계산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나눔을 통해 주의 뜻을 배우게 하시고, 이 시간이 형식이 아니라 사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 마음 열기 (7분)

가벼운 마음으로 서로 나누어 봅니다. 정답이 없는 질문이니 편안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 최근 한 달 사이에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했던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왜 하필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까?
- 요즘 내 어깨에 얹혀 있는 “멍에”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무엇입니까?

※ 말씀 봉독 — 열왕기상 12장 1-11절을 두 사람이 나누어 읽습니다. 한 사람은 1-5절, 다른 사람은 6-11절을 읽습니다. 이어서 인도자가 15절을 읽어 줍니다.

3. 본문 해설 (10분)

(1) 세겜이라는 자리 (1절)

르호보암은 즉위식 장소로 세겜을 택했습니다. 세겜은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을 모아 놓고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고 선포했던 언약 갱신의 땅입니다(수 24:1, 14-15). 르호보암은 그 자리가 지닌 신학적 정통성을 빌리려고 예루살렘에서 그곳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장소는 빌릴 수 있어도 정신은 빌릴 수 없습니다. 언약의 땅에 서 있으면서도 그는 언약의 하나님께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다.

(2) 사흘의 시간, 그러나 묻지 않은 분 (4-6절)

백성의 요구는 분명했습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은 사흘의 말미를 얻습니다. 기도하기에 충

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사흘 동안 원로들과 소년배들을 차례로 찾아갈 뿐, 하나님께는 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솔로몬은 즉위 후 기브온에서 일천 번제를 드리고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왕상 3장). 아들은 회의실로 갔습니다. 한 세대 만에 기도의 자리가 회의실로 바뀐 것입니다.

(3) 원로들의 조언은 정말 옳았는가 (7절)

원로들은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라”고 조언했습니다. 문장만 보면 훌륭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덧붙인 이유를 보십시오. “그리하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섬김을 권하면서도 목적은 백성이 아니라 정권의 안정이었습니다.

(4) 소년배들의 조언과 전갈 채찍 (10-11절)

함께 자란 소년배들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전갈 채찍은 끝에 쇠나 가시를 매단 채찍을 가리키는 말로, 힘을 과시하는 잔인한 수사입니다.

거칠게 말한 쪽과 부드럽게 말한 쪽이 있을 뿐, 두 조언 모두 하나님을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정반대로 보이는 두 선택지가 사실은 같은 뿌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 정리

핵심 : 신앙의 퇴락은 큰 배교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묻는 대상이 바뀌는 데서 시작됩니다.

(5) 멍에를 바꿔 메는 것이 신앙입니다

백성은 “가볍게 하소서” 했고 왕은 “더 무겁게 하리라” 답했습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도 결국 사람에게 멍에를 지웁니다. 그런데 참된 왕이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마 11:29-30).

주님은 멍에를 없애 주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신앙은 멍에 없는 삶이 아니라 멍에를 바꿔 메는 것입니다. 옛 농촌에서 어린 소는 반드시 노련한 소와 함께 겨리 멍에를 뗍습니다. 주님의 멍에가 가벼운 이유는 그분이 그것을 함께 메시기 때문입니다.

(6)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습니다 (15절)

15절은 이 모든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며,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르호보암은 자기 자유로 어리석게 결정했으나, 하나님은 그 결정을 통해 이미 하신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인간의 책임은 모순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히야의 예언에서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내 종 다윗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남기셨습니다. 그 남겨진 계보에서 참된 왕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찢으시는 중에도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4. 나눔 질문 (20분)

※ 관찰 → 해석 → 적용 순서로 진행합니다. 시간이 부족하면 ②④⑤를 우선 다룹니다.

① 관찰 — 장소와 사람

르호보암이 즉위식 장소로 택한 곳은 어디이며, 그곳에서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수 24:1, 14-15)? 또 여로보암은 스스로 이 자리에 왔습니까, 부름을 받았습니까(2-3절)?

② 관찰 — 요구와 두 조언

백성이 요구한 것은 무엇이며 그 조건은 무엇이었습니까(4절)? 원로들의 조언과 소년배들의 조언을 각각 한 문장으로 요약해 봅시다(7절, 10-11절). 11절의 “전갈 채찍”에서 어떤 인상을 받습니까?

③ 해석 — 거룩한 자리, 세속적 결정

르호보암은 세겔까지 올라가고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거룩한 자리에 앉아서 세속적인 방식으로 결정”할 때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④ 해석 — 같은 뿌리에서 나온 두 선택지

겉으로는 정반대로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뿌리에서 나온 선택지를 놓고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조언을 구할 때, 나는 지혜를 구합니까, 아니면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 줄 사람을 찾습니까?

⑤ 적용 — 지금 내가 메고 있는 멍에

내가 지금 지고 있는 멍에는 누가 지운 것입니까? 세상입니까, 나 자신입니까, 주님입니까? 마태 복음 11장 28-30절을 함께 소리 내어 읽고, 가장 마음에 남는 단어를 한 사람씩 말해 봅시다.

⑥ 복음 —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일

지금 내 삶에서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국면이 있습니까? 15절의 눈으로 그 상황을 다시 본다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하나님이 심판 중에도 한 지파를 남기셨다는 사실은 나에게 어떤 소망이 됩니까?

5. 적용 활동 — “질문을 바꾸는 결정 노트” (10분)

먼저 로마서 12장 2절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어서 나누어 준 백지에 세 가지를 적습니다.

1. 이번 주에 결정해야 할 일 한 가지를 적고, 그 아래에 “나에게 무엇이 남는가” 대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적어 그 답을 먼저 기록합니다.
2. 내가 누군가에게 지운 멍에가 있다면 그 사람의 이름을 적습니다. 이번 주 안에 사과하거나 그 짐을 덜어 줍니다.
3. 하루의 무거운 짐 한 가지를 적습니다. 매일 마태복음 11장 28-30절을 소리 내어 읽고 그 짐을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립니다.

작성한 종이는 성경 사이에 끼워 두고, 다음 셀모임 첫 순서에서 서로 확인합니다.

6. 합심 기도 제목

- 결정의 자리마다 사람의 여론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묻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서로에게 멍에를 지우지 않고 짐을 나누어 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 손익의 저울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게 하소서.

※ 마음 열기에서 나온 개인의 무거운 짐을 반드시 기도 제목에 포함하여 둘씩 짝을 지어 기도합니다.

7. 인도자 마무리 기도

참된 왕이신 예수님, 오늘 저희가 세겜의 언덕에서 저희 자신을 보았습니다. 거룩한 자리에 앉아서도 계산기를 놓지 못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흘의 시간을 얻고도 기도의 자리로 가지 않았던 왕처럼, 저희도 묻는 대상을 바꾸어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저희의 질문을 바꾸어 주옵소서. “나에게 무엇이 남는가”가 아니라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묻게 하시고, 서로에게 멍에를 지우는 자리가 아니라 짐을 나누어 지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께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지체들에게는 하나님의 주권이 설명이 아니라 붙들 손이 되게 하시고, 심판 중에도 한 지파를 남기신 그 언약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

옵소서. 흠어지는 각 사람의 삶 속에서 말씀이 사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함교회 셀예배 교안 · 열왕기상 강해 15 · 왕상 12:1-11